

경주시, APEC 준비상황 최종 점검

주낙영 시장 “행정력 총동원… ‘국제 회의도시 경주’ 완성”

市, 24시간 현장대응체계 가동
주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개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13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전 부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제는 점검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에 와 있다”며 “국가적 행사로서 경주의 품격이 세계 무대에 드러나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건의 허점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업소, 관광지, 식당, 교통시설까지 모든 현장에서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품격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경주 홍보 대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궁과 월지 임시주차장 정비공

사를 이달 중 준공하고, APEC CEO 서밋 환영만찬장으로 쓰이는 어울마당 등 주요 시설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국은 행사장 일대 CCTV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

주낙영 시장은 “행정의 준비만으로는 완전한 성공이 어렵다”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가 진정한 APEC 개최 도시”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16~17일 APEC 회원국 투자포럼, 18일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CEO 서밋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해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부서별 현장점검을 일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영주시가 지난 13일 ‘2025년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조직 내 괴롭힘 경험과 대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는 피해 경험과 유형, 대응 방식, 조직의 대응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예방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직급과 상황에 맞춘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대구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 ‘A’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교육발전특구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협의회 활성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1:1 매칭을 통한 재원 확보와 투명한 집행 관리 ▲지역지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활성화 ▲IB 프로그램 확산,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함평군, 여성 건강 증진 팔 걷어

전남 함평군이 전 연령대 여성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로 여성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16명의 가입기 여성을 비롯해, 50~60대 여성 29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전문가의 1:1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달맞이공원’ 첫 삽

부산시가 14일 해운대구 중동 일원에서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달맞이공원은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장기 미집행 상태였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추진되며 물살을 탔다. 2028년까지 3만3427㎡ 부지에 총 공사비 233억원을 투입,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박형준 시장은 “달맞이공원은 생태·경관·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해운대 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동시, 경상권 문화도시 발전 ‘앞장’ 포항시 “2035년 농식품 수출 500억 달성”

진주시·통영시 업무협약 체결
정책 협력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북 안동시와 경남 진주시, 통영시가 ‘경상권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날 진주시 진주성 중영에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가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권 대표 문화도시인 안동, 진주, 통영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 공동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적 교류, 지역 간 문화기업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교류,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전통놀이문화를 재해석한 독창적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동시와 진주시, 통영시가 지난 13일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허대양 통영부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조규일 진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영시는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창의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음악과 공예 중심 창작 활동과 예술가 지원을 강화한다.

진주시는 ‘문화와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상권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도시가 각자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한다면 경상권은 대한민국 문화정책 중심축이자 지역 문화 균형발전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

딸기 등 전략품목 집중 육성

포항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2035년 농식품 수출 500억 원 달성’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경상북도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34억 원에 불과했던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은 2025년 8월 기준 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수출 대상국도 일본·미국·캐나다 3개국에서 현재 22개국으로 확대됐다.

포항산 농식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푸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수출 품목도 사과와 토마토 2종에서 딸기·포도·단감·배추·시금치·부추 등 18개 품목으로 다양화됐다.

포항시는 특히 딸기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중이다. 상주·

고령과 함께 경북 3대 딸기 수출전문시범단지로 지정해 수출용 신종품 재배 기술 교육과 선별장 설치 등 수출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1월 첫 수출(30톤)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딸기 단일 품목으로 50억 원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친환경 인증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민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포항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시는 수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지역 농특산물 수출 증대와 영일만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며, 시는 경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국·도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 일정 불투명

노사 임금협상 결렬… 쟁의수위 관건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대형 화재로 휴업 중인 광주공장의 쟁의행위 수위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합원 3493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노사는 이날 교섭을 재개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

는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을 들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사간 갈등에 따라 이달내 예정된 공장 재가동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대형화재로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의 경우 파업은 노조의 협상카드나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업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파업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형 화재로 5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은 근로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노사는 조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일정대로 이달내 생산재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석보·입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영양군 사업비 150억 확보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석보·입암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유휴시설의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주택 전소, 농업시설·농기계·농작물 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양군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와 생활 기반 재건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임시조

립주택에서 거주 중인 산불 이재민들의 불안정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교와 장기 방치시설을 철거하고 임대형 전원주택과 농기계 수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농업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기능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교류 및 힐링공간을 함께 조성해 정신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